

코로나19 예방 대응체계 강화

임실군, 감염 취약 시설 감염예방 수칙 배포·고령층 등 군민 대상 예방 홍보

임실군이 최근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코로나19는 감염력이 높은 감염병으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치명률이 0.1% 수준으로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나, 특히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고령층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군은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감염 취약 시설 등에 배포하고 준수하도록 당부하면서, 임실군민 중 코로나19 유증상자(발열, 기침, 인후통 등)에 한해서 오는 9월 30일까지 코로나19 전문가 진단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해 입과 코 가리기,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이 감염예방에 도움이 된다.

아프면 병가를 내고 쉬 수 있도록 권고한다.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고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대규모 인원이 실내에 모이는 행사 등은 참여 자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 방문 등을 권고한다.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 시설에는 종사자와 보호자, 방문자는 마스크 착용,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하도록 당부한다.

심민 군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어 취약 시설과 고령층을 비롯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손 자주 씻기, 적절한 환기, 기침 예절 지키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 진료 받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개최

조례안 12건 의결·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28일 1일 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개최해 순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2건을 의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앞서 8월 27일 순창군의회는 제286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12건을 심의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에 오수환 의원, 간사에 조정희 의원을 선임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성용 의원이 '하위운동기구 관리계획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순창군의회는 오수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손종석 의장은 10년 만에 순창에서 개최되는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를 언급하며 "순창을 방문한 선수단과 관중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군민 모두가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기를 기원한다"고 말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제3기 청년정책 협의체 참여 청년 모집

순창군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제3기 순창군 청년정책 협의체'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다가오는 9월 6일까지 진행되며, 순창군은 이를 통해 지역 청년들과 행정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군 청년정책 협의체는 최근 개관한 청년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행정과 지역청년의 소통을 위한 연결고리 역할, 각종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순창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거나 순창군에서 경제활동 등을 하는 18~49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는 순창군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 심사를 통해 연

령, 희망하는 활동 등을 고려해 25명 이내로 선발할 계획이며, 결과는 9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순창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63-650-15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활력 넘치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수다"며 "지역과 소통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낼 적극적인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청년정책협의체 외에도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을 결과, 최근 3년간 순창군의 청년 인구는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추석맞이 예초기 무상점검 사업 실시

순창군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과 지역주민의 원활한 벌초 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석맞이 예초기 무상점검'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농업기술센터 분소와 북흥·쌍치권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운영된다.

점검 대상은 순창군민이나 벌초를 위해 순창을 방문한 귀성객이며, 점검 내용으로는 예초기 작동 점검과 예초기날, 점화플러그 등 6만 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 교환과 안전한 예초기 사용 교육도 병행한다.

군은 2개조를 편성해 체계적인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귀성객과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무상점검 서비스는 귀성객과 주민들의 편리한 벌초 작업을 지원하고 더불어 예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면서, "군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소방서 완강기 사용법 홍보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가 건물 내 화재 시 계단 등을 통한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을 홍보하고 있다.

완강기는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는 2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하고, 숙박시설은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는 사용자가 교대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완강기와 사용자가 교대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간이 완강기(인용 완강기)로 구분되며, 사용 순서는 △지시대 고정 확인 △완강기 후크를 고리에 걸고 지시대와 연결 후 나사 조이기 △벨트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쓰고 뒤돌림이 없도록 거드림이 밑에 걸기 △고정 링을 조절해 벨트를 가슴에 확실히 조이기 △로프가 감겨있는 띠를 침박, 내려갈 곳을 향해 내려가기 △지시대를 침박으로 위치 △두 손으로 조절기 바로 밑 로프 2개를 잡기 △델탈이 벽에 부딪치지 않도록 손으로 벽을 가볍게 밀며 내려가기 순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

임실군이 이달 말까지 지역 내 유치원, 초·중·고교 통학로 주변의 주요 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2024년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비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로 300m)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을 비롯하여 학생들이 경유, 통과하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구간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2개 조로 편성해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하고 안전사고 위험, 파손·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 등에 대해서는 업주에게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농협 남원시지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남원시는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와 28일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경식 시장, 오영석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장 등 임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양 기관의 상호협력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으로 시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는 시행 첫해인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은행창구 수납 협력과 각종 행사장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을 추진, 6천7백만원을 기부했다.

오영석 지부장은 "남원시와 업무협약을 계기로 고향사랑 기부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남



남원시는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와 28일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시를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이에 최경식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제도의 성공과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농협중

앙회 남원시지부와 협력을 확고히 다져,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부흥으로 행복한 남원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순창·남원 4H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남원시4H연합회(회장 문광섭)는 28일, 남원거점스포츠클럽에서 제4회 임실·순창·남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남원시 4H연합회가 주최, 임실·순창·남원 4H연합회 회원 및 관계자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에서는 4H의 기본 이념인 지·

덕·노·체 4개 팀으로 구성해 몸으로 말해요, 인간웃음이, 축구, 도전90초 등 회원 모두가 참여해 열정이 분출되고 기를 발산하고, 이후 시군 간 교류활동, 우수 선진농장 견학을 하며 회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역량강화 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